

경제

‘메이드 인 광주’ 美시장 석권 ‘쌍쌍’

‘메이드 인 광주’가 미국시장을 흔들고 있다. 광주 대표적 기업인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쏘울’이 미국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일본 박스카 차종들을 줄줄이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있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에서 만드는 냉장고·세탁기·건조기는 미국 소비자기관인 ‘JD파워’의 평가에서 각각 부문별 1위를 차지하며 세계 톱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기아차 쏘울, 박스카 시장 독주

도요타 ‘xB’ 닛산 ‘1.8 베이스’ 못견디고 단종 결정

광주에서 생산하는 기아차 ‘쏘울’이 미국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며, 경쟁 ‘박스카’들을 잇따라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있다.



24일 관련 업계와 자동차 전문가사이트 ‘카닷컴’(car.com)에 따르면 도요타는 사이언 xB 모델의 경우 연식변경 없이 미국시장에서 단종할 방침이다. 닛산도 미국시장에서 2013년형 큐브 ‘1.8 베이스(base)’와 ‘1.8 S 인디고 한정판(Indigo Limited Edition)’ 2개 트림을 없애기로 결정했다.

반면 기아차 쏘울은 올해 2월부터 매달 1만대 이상 팔리며 소형 박스카 시장에서 독주하고 있다.

2009년 3월 미국시장에 진출한 쏘울은 그 해 3만1587대가 판매되며 단숨에 현지 소형 박스카 시장 1위에 올랐다. 이후 2010년 6만7110대, 2011년 10만2267대가 팔리면서 경쟁모델

과의 격차를 벌렸다. 올 상반기에도 쏘울은 북미시장에서 무려 6만6541대(선적기준)가 팔렸다. 전년 같은 기간(4만8776대)보다 36.4% 증가했다.

반면 사이언 xB는 1만206대, 큐브는 4085대 판매되는데 그쳤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상무지구에 도시형생활주택 분양

진아건설 ‘리채시티’ 387가구

진아건설이 상무지구에 처음으로 도시형생활주택 ‘리채시티’를 선보인다. (조감도)

‘리채시티’는 지하 2층~지상15층 규모로 도시형생활주택 297가구, 오피스텔 90호 등 총 387가구 소형평형 위주로 구성됐다.

도시형생활주택은 1인 가구의 생활패턴을 최대한 반영한 게 특징이다.

20~30대 젊은 직장인을 겨냥하고 있다. 교통과 상권의 중심에 위치해 교통비 절감은 물론 생활편의

성이 좋다. 또 발코니 무상 확장, 바닥 난방, 빌트인가전,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등을 적용해 주거 편의성을 높였다.

사통팔달 교통망으로 운전자와 상무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제2순환도로, 무진로, 빗고울로 등의 접근이 용이하다.

인근에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생활편의 시설과 5·18기념공원, 메가박스, 롯데시네마와 같은 문화·편의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다.

특히 상무지구 내 관공서·금융기



관·기업·콜센터 등이 상주, 두터운 임대수요층을 형성하고 있어 투자 가치도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 1가구 2주택 미적용, 재산세·부가가치세·취득세 면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 증가

배제 등 세제혜택도 풍부하다. 진아건설은 광주시 서구 광천동 신세계백화점 뒤편에 모뎀하우스를 마련, 25일 문을 열 예정이다. 문의 062-374-0000.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현대차 22년 노사협상 분석해보니

무분규때 임금 더 올랐다

현대자동차 노사협상을 분석한 결과, 노조가 파업을 하지 않은 무분규 때 임금이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파업 등 극단적 투쟁을 통해 회사 측을 압박한 노조 집행부보다 노사문화 선진화에 적극 동참한 집행부가 조합원들에게 ‘과실’을 더 쥘거였다는 얘기다.

윤기철 좋은일터연구소장은 24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주관으로 열린 ‘2012 코리아 오토포럼’에서 ‘자동차산업 노사관계 평가와 발전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윤 소장은 “1990년 이후 22년간 현대차의 노사협상을 분석한 결과, 1991년 중도노선인 이상범 집행부가 무분규로 협상을 마지며 19.8%라는 역대 최고치의 임금인상률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윤건호선인 이영복 집행부는 1994년 무분규로 협상을 끝내며 그 이전보다 훨씬 많은 몫을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며 “2009~2011년 3년 무분규를 이끌어낸 이영훈 집행부 때도 다른 집행부에 비해 많은 협상성공을 올린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무분규로 마무리한 1994년 임금 협상때 노사는 기본

급 13.5% 인상과 성과급 200%, 격려금 72만원 지급에 합의했다.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기본급을 동결했으나 노조원들에게 성과급 300%와 격려금 500만원, 자사 주식 40주를 지급했다. 2010년과 2011년에도 집행부는 4~5%의 임금인상과 함께 300~500%의 성과급, 자사 주식 지급 등의 성과를 올렸다.

반면 강성노조의 파업으로 1조 원 이상의 생산차질과 손실을 기록한 2003·2006·2008년과 8900여억원의 매출 손실을 낸 2005년에는 다른 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본배의 몫이 적었다. 역대 최대인 1조7600억원의 손실을 본 2003년에는 기본급 8.6% 인상으로 한 자릿수를 기록했고 2006년에는 5.7%에 그쳤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Table with financial data: 코스피지수 1,793.93 (+4.49), 코스닥지수 468.28 (-3.96), 금리 (국고채 3년) 2.83% (+0.01), 원·달러 환율 1,146.10원 (-0.50)

삼성 가전제품, 소비자 평가 평정

냉장고·세탁기·건조기 각각 해당부문 1위

광주에서 만드는 삼성 냉장고·세탁기·건조기가 미국에서 호평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24일 광주사업장에서 생산하는 냉장고와 세탁기, 건조기가 미국 소비자기관인 JD 파워의 2012년 가전 평가에서 각각 해당부문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JD 파워는 1968년 설립된 미국의 가장 권위 있는 민간 시장조사 기관이다. 전자·통신·자동차 등 대부분 소비재에 대해 수 만 명의 소비자들이 제품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전문 기관이다.

냉장고는 807점, 세탁기는 824점, 건조기는 822점을 각각 획득해 제품별 시장평균보다 40~50점 높은 점수를 받았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1위를 차

지했던 삼성전자 냉장고는 작년에 2위로 떨어졌다가 다시 1위로 복귀했다. 소비자에게 유용하고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세탁기는 목조 건물이 많은 미국 가정에 적합한 저진동 기술과 디자인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아 4년 연속 1위에 올랐다.

건조기도 성능·신뢰성·편의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해 1위 자리를 5년째 지켰다.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임영훈 전무는 “이번 평가는 삼성전자가 고객만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소비자가 원하는 혁신적인 제품을 출시해 고객의 생활에 가치를 더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디자인 개발 업무협약 광주디자인센터(왼쪽) 장승근·원익희와 나노바이오연구센터(소장 이재희)는 지난 23일 나노바이오연구센터 회의실에서 디자인개발의 유기적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정보 교류와 장비 공동 활용, 특허 디자인 개발 등을 협력·지원한다. <광주디자인센터 제공>

호남권 교통망 효율화 방안 찾는다

익산국토관리청, 국토연구원에 연구용역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호남지방의 국도와 지방도, 고속도로, 철도 등 모든 교통망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익산국토관리청(청장 구자명)은 호남권 연계교통망 효율화 방안을 찾기 위한 용역을 국토연구원에 체결하고 최근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가졌다

연구용역은 도로별 방주기관이 달라 발생할 수 있는 연계성 미흡과 지자체의 재정 부족으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 도로관리기관 이원화에 따른 사업효과 감소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고속도로와 국도, 지방도 등 관리청이 달라 발생할 수 있는 도로 간 연계성 부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도로와 KTX(철도), 공항, 항만 등의 교통망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또 전국 섬의 65%로 섬의 비중이 크고 낙후된 서남해안권의 특성이 반영된 도로망 구축 방안도 도출될 예정이다. 연구용역을 맡은 국토연구원은 다양한 현장 조사와 해외사례 조사 등을 통해 올해 12월 중간보고회를 거쳐 내년 3월 최종 연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아이엘리시아' (Ailiasia) restaurant. Features a list of 150+ menu items, prices,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es a '24시간 유·스퀘어사우나' (24h Y-Square Sauna) promotion.

Advertisement for '방과후교육 사업설명회' (After-school Education Project Briefing Meeting). Includes date (Aug 16), location (Kwangju Education University), and details about the program and contact info.